

광주에 인구·예산 집중... 목포 '2등 도시'로 밀려나



급성장을 거듭하던 목포는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광주에 밀려 '2등 도시'가 된다. 바다와 무안군에 가로막혀 도시성장에 제약이 컸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고, 점차 행정도시이자 내륙도시인 광주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도 그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목포공회당 전경.



무역도시이자 상업도시인 목포에 회사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금융기관들도 속속 들어섰다. 사진은 조선은행(위)과 18은행의 목포지점.



목포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조치 이후 일본식 행정시스템을 목포에 주입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서다.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근대화탐사 <30>



(전남편)

10. 뒤처지기 시작하는 1930년대 목포

목포의 개항과 함께 식민지화와 근대화, 도시화가 동시에 시작되는 전남은 일제강점기 초기 투 트랙, 즉 개항장이자 무역중심도시 목포와 도청 소재지이자 행정중심도시 광주를 양축으로 했다. 물론 목포가 주축이었고 광주는 부수적인 축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착취'와 '수탈'이라는 조선반도를 삼킨 일제의 목표와 직결된다. 개항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조선의 '가치'를 약아가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목포에 이사청(1905년 을사조약으로 설치된 일제 통감부의 지방기관)이, 광주에 그 지청이 들어섰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무안군에서 독립해 목포는 부가 됐고, 나머지는 무안군으로 분리됐다. 사실상 목포시 역사의 시발점이다. 반면 광주는 1914년 면이라는 명칭을 얻은 뒤 1931년 읍이 됐고, 1935년에야 부의 지위를 얻었다.

언제나 일제에게 목포는 호남 1순위였으며, 그 기조는 1920년대까지 견고하게 지켜졌다. 그 틀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수도 경성과 목포 사이에 자리잡은 중개기지 광주는 낱알이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계속했고, 1911년 목포로의 도청 이전 움직임은 저지하면서 도청 소재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 것이 주요했다.

도시성장의 주요 요인이자 결과물인 인구와 예산을 살펴보면 이는 극명해진다.

우선 목포의 인구는 1910년 2529호 1만655명(한국인 7076명, 일본인 3494명, 나머지는 외국인), 1919년 3564호 1만 5314명(1만 348명, 4852명), 1928년 6198호 2만 9894명(2만 1707명, 7931명) 등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광주면 역시 비슷한 시기인 1912년 1만431명(8477명, 1924명), 1925년 2만3197명(1만 8835명, 4178명) 등으로 인구는 급속히 늘기는 했다. 광주면의 경우 유입인구도 있었지만 광주군의 주변 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입한 것이 인구 증가의 원인이었다. 반면 목포부는 1910년 무안부에서 독립하면서 각공공물거유지와 삼향면 등 8개 면 등 모두 19개 면(66동리)을 관할지역으로 했으나 이후 1914년 부제 실시 이후 오히려 면적은 거유지 및 접속 시가지로 좁혀지고 나머지 촌락지역을 무안군에 넘겨줬다. 다시 말해 도시 면적이 줄어들면서 인구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후 1935년 목포부의 인구는 1만3074호 5만9046명(한국인 4만9967명, 일본인 8836명), 같은 해 부로 승격된 광주부의 인구는 1만1193호 5만2674명(한국인 4만4715명, 일본인 7735명)으로 엇비슷하게 됐다. 특히 광주의 일본인 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포의 일본인 인구 증가율은 다소 추축하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 1912년에 비해 23년 만에 4배 이상 늘었고, 이는 도시에 대한 투자와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예산은 크게 경상부와 임시부로 나뉜다. 경상부는 지금의 일반회계, 임시부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는 일반적인 운영경비를, 후자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 목포부의 1932년 예산은 34만7579원(경상부 22만4395원, 임시부 12만3184원), 1933년에는 41만7437원(24만8278원, 16만9159원), 1934년에는 74만8911원(26만5640원, 48만3271원)이었다. 반면 1931년 읍으로 승격된 광주읍의 1934년 예산은 18만6835원(10만2478원, 8만4357원)으로 같은 해 목포부 예산의 4분의1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예산인 임시부는 5분의1로, 그만큼 목포부에서의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1935년 광주가 부로 승격하면서 역전된다. 1935년 22만4300원에 불과했던 광주부의 예산은 1936년 57만

4984원, 1937년 99만1525원이었다가 해방 2년 전인 1943년에는 141만4883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목포부의 경우 1935년 49만 8161원, 1936년 57만1343원에 머물렀다.

이로써 일제가 낱알이 성장해가는 광주읍에 일본인이 몰리고 이에 1935년 광주를 부로 승격시키면서 예산 투자도 목포부보다 광주부에 더 집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 항구지만 규모도 작고 확장 가능성도 미흡한 목포보다 행정중심지이면서 호남선 개통으로 송정리역, 광주역, 남광주역 등이 생겨나 교통 및 상업중심지로 부상한 내륙도시 광주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다시 1935년 목포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1936년 목포부가 발간한 '목포부세일방'에 따르면 1935년 목포 인구의 절반 가까이인 2만2857명이 상업(한국인 1만5883명, 일본인 4117명)에 종사했고, 공무 및 자유업(5969명), 공업(4599명), 농업 및 목축업(2075명), 어업 및 제염업(54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무역항답게 1935년 수출입액은 111만5489원(수출 39만9782원, 수입 71만5707원)에 달했고, 만주국과의 거래액이 35만882원(수출 21만4996원 수입 12만5886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남아 44만2447원(16만9868원, 27만2579원), 중국 18만5124원(1만 4918원 17만206원) 등이 그 다음이었다. 이 책은 당시 주요 수출품은 쌀, 면화, 해산물, 주요 수입품은 방, 원유 및 증유, 목재 등으로 적고 있다. 시장은 남동시장(개시일 361일 거래액 24만 148원), 북항시장(개시일 356일 거래액 10만5598원), 육 어시장(개시일 362일 23만3353원)이 있었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면화의 판매소에서는 1933년 89만4396원 어치(670만8635근)가 거래돼 정점을 찍은 뒤 1934년 41만7921원(223만6848근), 1935년 38만464원(221만7222근)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1935년 당시에는 1913년 설립된 조선면화주식회사(자본금 200만원) 등 27곳

의 주식회사 등 회사는 모두 85곳이 운영됐고 금융기관은 조선은행 목포지점, 신한은행 목포지점, 18은행 목포지점, 목포금융조합(조합원 수 1150명), 무안금융조합(조합원 수 2891명), 목포무진주식회사 등이 있었다.

공설운동장은 호남정에 1930년 7월6일 3557평에 조성돼 주로 야구장으로 쓰였고, 1928년 6월1일 문을 연 부림도서관에는 6687권의 책이 소장돼 있었다. 목포부 은금당에는 1922년 11월25일 9평 규모의 공설세탁소도 있었고, 부림병원과 부림대성병원 등 종합병원 2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공동묘지는 일본인 전용이 목포부 쪽교리(5687평)에 한국인 전용은 목포부 산정리(2만7783평)에 조성됐다. 목포의 항만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시설이었다. 1897년 10월1일 개항과 동시에 갯벌 매립과 호안 축조를 통해 설치되기 시작한 항만시설은 1905년부터 국비 9만2000원으로 하치장 4곳, 호안 1곳, 잔교 2기 등을 보완했으며 1915년 항구 내에 준설선 1척을 상시 주둔시켜 갯벌 준설에 나섰다. 그리고 1926년 공사비 60만원으로 5개년 계속사업으로 해안도로에 인접한 갯벌 1400㎡를 매립하고 연장 100m의 호안을 축조, 500t급, 2000t급 기선이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이 항만의 하역작업은 주로 한국인의 몫이었으며 모두 150여 명이 고용돼 일시에 3000t의 짐을 내렸다. 또 부족한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을 일시에 500~600명씩 데려다 집을 내리기도 했다. 1등도로(국도) 4588.8m, 3등 도로(지방도) 2700m, 등의도로 2만1159m 등 2만 8447.8m가 포장돼 있었고 정거여객선은 오사카~여수~목포선, 도쿄~인천선, 오사카~인천선, 오사카~목포~제주도선, 신의주~도쿄선 등 수십 개가 있었다. 목포~광주 간 자동차 운임은 1.5엔, 전화가입자 수는 731가구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쌀과 면화를 주로 수출했던 목포에서 곡물검사장(위)과 곡물상조항은 중요한 기관이었다.



중앙공설시장



목포 형무소

1932년 목포 예산 75만원으로 광주 4배

항구 규모 작고 지리적 한계에 성장세 주춤

광주 호남선 개통후 행정·상업중심지 부상

1943년 예산 141만원...목포 3배로 역전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특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별 서비스포드름 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or [와인 or 생맥주 1잔]

Be natural
Be delicious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